

올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연중 제15주일 (2025년 7월 13일)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신명 30,14)



Eugène Delacroix The Good Samaritan, oil on canvas 1849 private collection

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로, 그의 생생한 색채와 역동적인 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 중앙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혼신의 힘을 다해 자기 나귀에 올려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과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루카 10,29)



1. 시작 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를 살피시는 하느님 아버지,
본당 설정 50주년을 맞는 저희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축복을 내리소서.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성당, 저희 공동체는 미국이라는 이국땅에서 가톨릭 한인 공동체를 꾸려 왔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공동체의 신앙과 사랑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우면서
공동체를 꾸려 왔습니다. 50주년을 맞는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때 세상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시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저희는 한인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한국 순교자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가꾸어 왔습니다.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강인한 순교 영성은 이국땅에서 저희들의 삶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강인함을 본받아 저희는 공동체를 잘 지키고 가꾸었고,
앞으로도 그 모습을 이어가겠다고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시간 함께 다짐해 봅니다.

주님, 사랑과 일치와 공동체를 가꾸어 나아가려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로 하여금 주님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식탁에서 받은 사명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성찬의 식탁에서 받은 은총을 가난한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가정에도 항상 함께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성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저희 본당 모든 교우들이 영원한 생명에도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시작 성가로, 셀라 성가 209번 “새로운 계명”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새로운 계명



1 D Bm Em A7 F#7 Bm
내 가 너 희 를 사 랑 한 것 처 럼 너 희 도 서 로 사

7 Em E7 A7 Aaug D Bm Em A7
랑 하 여 라 세 상 사 랑 들 그 것 을 보 - 고 서 로

13 D G D/A A D D7
사 랑 하 리 라 모 두 내 게 오 리 라 1.주
2.주

17 G D B7 Em A7
님 내 이웃 의 소 박 한 웃 음 에 서 당 신 을 보 니
님 내 이웃 의 가 난 한 기쁨 에 서 당 신 을 보 니

23 D D7 G D D7
다 음 - 주 님 내 이웃 의 말 없 는 눈 물 에 서 당
다 음 - 주 님 내 이웃 의 끝 없 는 슬 픔 에 서 당

29 G E E7 A7 Aaug D Bm
신 을 느 낄 니 다 음 - 이 제 우 리 는 새 로
신 을 느 낄 니 다 음 - 이 제 우 리 는 새 로

35 Em A7 D G D/A A D
운 계 명 따 라 서 로 사 랑 합 니 다 가 난 한 마 음 으 로
운 계 명 따 라 서 로 사 랑 합 니 다 가 진 것 을 나 누 며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루카 10, 25-37)

그때에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27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28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29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30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31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2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34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지난달 반모임 생활 나눔

트로이 야유회를 마치고

6월임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바람과 흐린 날이 이어지는 미시간에서, 다행히 따뜻한 햇살아래 7일 토요일 트로이 구역 야유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참여 가정이 줄어든 만큼 분위기가 어색하거나 썰렁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야유회 장소인 **Brinston Park**로 향했습니다. 걱정도 잠시, 하느님께서 트로이 반원들에게 신앙과 친교를 나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웃고 이야기 하니 신앙 공동체의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신 선배 신자님들의 옛날 이야기,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과 신앙 이야기, 장성하거나 아직 커 가는 아이들 이야기 등으로 야유회 내내 웃음과 이야기 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채민 사도요한 신부님 방문으로, 성김대건 성당에서 함께 할 두 달이 단순히 짧은 인연을 넘어, 신부님과 트로이 신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신부님께 미시간 삶을 이야기 해 드리고, 신부님은 유학 하시는 곳의 이야기를 해 주셔서 신부님과 친교를 더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더하여 작년부터 트로이 야유회 진행했던 **Brinston park**는 한 팀만 공원 대여를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어른들에게는 한층 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인원이 많이 줄어 평신자인 저보다 더 노심초사 하면서도 끝까지 야유회 준비에 앞장 서 주신 트로이 반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여 가정들의 정성어린 지원과 봉사 덕분에 **2025년** 트로이 야유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트로이는 저에게 미국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비록 신자 유입이 줄어들고 야유회 규모도 작아졌지만, 여전히 좋은 선배와 친구 신자들과 추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트로이 신자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Troy forever !**

- 홍영지 (마리아막달레나) -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로마 5,3) 말씀으로 기도하며, 젊었을 때는 삶 속에 고난이 닥쳐와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었지만 지금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상황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환난속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기 보다 그 환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인내와 수양이 길러지며 반드시 희망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AA2]
-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5,5)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하느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채워진 사랑으로 자녀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AA2]
-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 16,13) 말씀으로 기도하며,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깊은 연합과 일치와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CT]
-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CT]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시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41 형제에게 베푸는 것
(마태 25,37-40)

가볍게 *mp* 주재효 작곡
김대봉 편곡

1. 우 리 가 어 느 때 주 님 께
2. 우 리 가 어 느 때 주 주 님 을
3. 우 리 가 어 느 때 주 님 을

음 식 을 드 렸 고
음 집 에 다 모 션 고
돌 보 아 드 렸 고

목 마 른 주 님 께
혈 벗 은 주 주 님 께
병 드 신 주 님 께
문 실 것 것
병 을 병 을

언 - 제 드 렸 나
언 - 제 드 렸 나
언 - 제 하 였 나

진 실 히 네 게 이 르 노 니 미 소 한

형 제 중 에 하 나 에 게 베풀
는 것 모두 가 내 게 한 것 - 이 니

pp
라 내 게 한 것 이 니 라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당 설정 50주년 기념 기도 봉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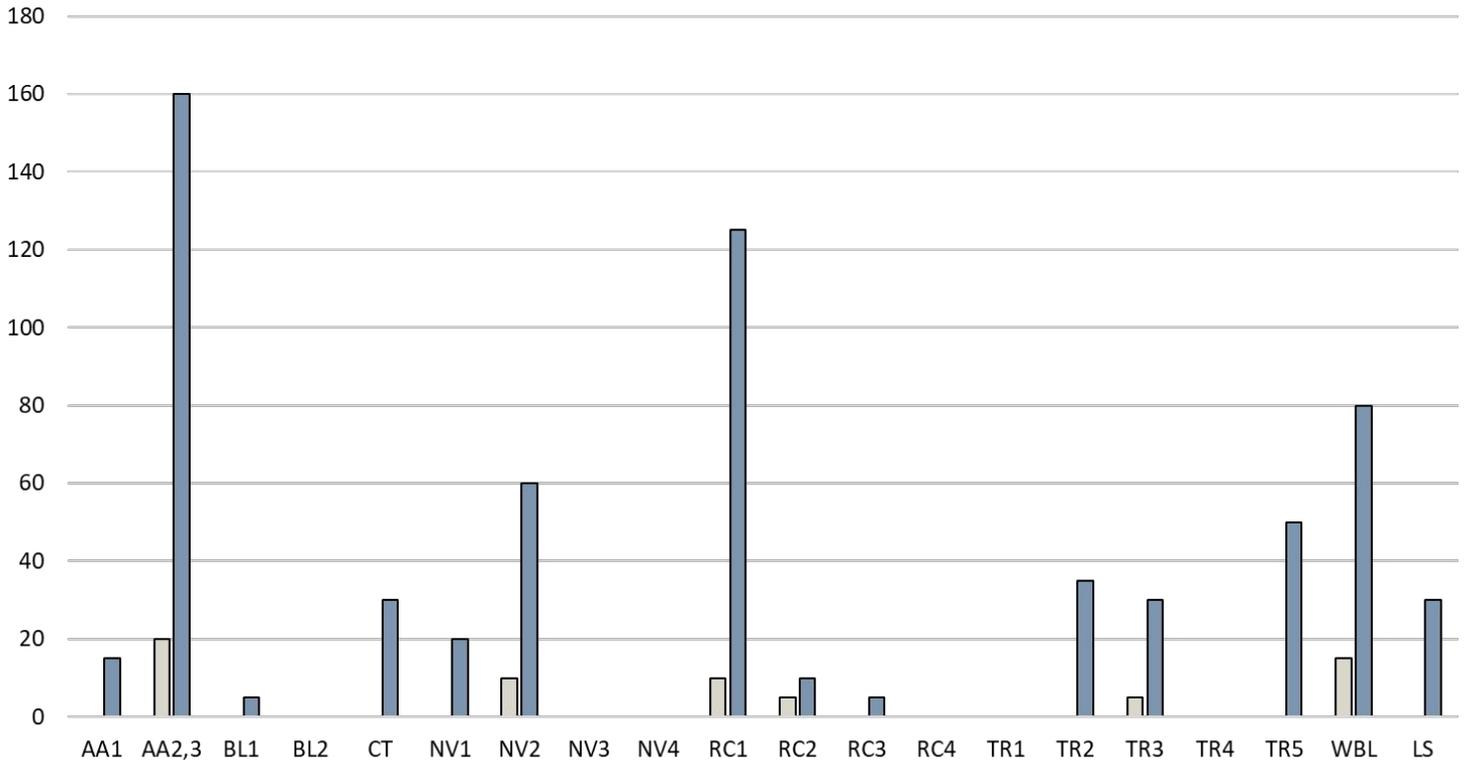
	미사봉헌	목주기도 (단)	본당50주년 기념기도문	영적목상 (시간)	화살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	수도자를 위한 기도	선행
JUN 2025	52	6810	171	30	103	209	192	105
TOTAL	1000	22544	1554	321	1976	1383	1255	345



2025 성경공부 및 성경잔치 역사서 말씀과 함께

반별 숙제 제출 현황

- 열왕기 하권
- 누적



매달 통독 분량을 공부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개인별로 제출하시면 반별로 취합하여 숙제 한 건당 5점씩 반별점수로 11월에 열리는 성경잔치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정해진 양식의 종이로 제출하시는 경우 사무실 교육부 트레이로, 파일로 제출하시는 경우 홍세훈 교육부장 이메일(sehoon9224@gmail.com)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2025 성경 공부

열왕기 하권 말씀과 함께

열왕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솔로몬 시대부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될 때까지의 역사, 분열되고 난 후의 두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 그리고 유다 임금 여호야킨이 바빌론 임금 에월므로닥의 호의로 바빌론 감옥에서 석방될 때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스라엘 왕조의 멸망은 하느님을 배신한 결과이자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서를 읽으며 하느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7백년간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껏해야 몇 십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도 하느님과 관계하는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스라엘의 체험을 우리의 체험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거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삶을 보는 듯한 많은 이야기들의 시행착오를 보며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신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 글 | 방성원 목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오직 주님만을 모시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벌을 받는 것을 보고 단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서 공부를 통해 주님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를 잘 극복해 나감으로써 신앙인이 참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글 | 왕승진 유스티노

우상숭배로 인한 종교 혼합주의가 죄가 됨을 묵상하며, 온전히 하느님을 따르려 한다지만 제 신앙에서도 여전히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려 한다지만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도 제 힘으로 불가능해 보였고, 어찌 보면 '비움과 낮아짐'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어야만 하는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하느님을 더 자주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결론을 내려 더 자주 말씀과 미사에 참여해서 하느님과의 잦은 만남을 갖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글 | 최승원 엘리사벳

열왕기 하권 25장은 하느님의 백성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굶주림과 혼란 끝에 성전은 불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며 민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 오늘 중동에서 또다른 폐허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뉴스에서는 도시는 불타고, 민간인은 고통받으며, 종교, 민족의 이름 아래 무고한 희생과 죽음을 전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단지 군사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듯 오늘의 전쟁도 힘의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뿌리엔 거듭된 불신, 불순종, 무시된 예언, 자만과 복수, 욕망이 있습니다. 치드키야 왕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라는 하느님의 음성은 국가의 자존심과 권력의 고집에 묻혔고,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도, 이란도, 그리고 그 주변 강국들조차 ‘내가 옳다.’는 주장 속에 대화를 거부하고, 역사의 교훈을 잊은 채 무력으로 정의를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겸손한 기율임에서 온다는 것일요.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할 때, 끝까지 기회를 준 하느님 vs 끝까지 기회를 놓친 치드키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폭력과 분열, 증오의 파편들 속에서도 하느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전쟁을 보시고 하느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은 다름 아닌 한 왕의 석방입니다. 여호야킨은 바빌론의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식탁에 함께 앉고 존중받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즌2를 예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야킨에게서 다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신호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느님의 약속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자,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회복과 새 출발의 씨앗입니다. 우리 시대의 전쟁에도 이런 여호야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 한 번의 용서, 한 줄기의 대화의 문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인간을 통해 평화를 이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 글 | 진순미 보나

열왕기 하권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느님께 불순종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이 하느님을 저버릴 때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출발하여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 계명을 받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맹세했고 모세도 누누이 당부했었으며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면서 하느님과 맺은 율법과 계명을 목숨을 다해서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을 위해 임금을 세워 하느님이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왕임을 망각하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다.” (2열왕 17,7-8)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을 못알아듣고 죄를 범할 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마저 알아차리지 못하여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주셨던 가나안 땅의 왕국을 다른 민족들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시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동안에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나눔 속에서도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 신부님의 강론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글 | 박소연 세실리아

“주님께서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느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뺏뺏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다.” (2열왕 17,13-16)

“유다도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앞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2열왕 17,19-20)

하느님께서서는 반복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예언자들을 보내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느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거나,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에 하느님께서서는 그 왕들과 백성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며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이 강조됩니다. 그러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인간의 죄는 스스로 벌을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은 파괴를 부르며, 참된 회개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쩌면 동일합니다. 역사서이자 예언서라고 회자되는 열왕기 하권은 어쩌면 역사서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삶을 표기한 예언서가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삶은 역사를 공부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도돌이표처럼 다시 죄를 짓고, 하느님께 나아가 그 죄의 회개와 자비를 청하고 있는 것 때문인지는 아닌지 묵상해 봅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세속의 시선으로 세상과 함께 살고자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저는 어쩌면 죄의 회개나 반성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녀로서 저의 죄를 회개하며, 저의 죄의 용서를 청합니다. 제 안의 주님을 뵈지 못하고, 밖에서의 평화와 세속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저를 용서하시고, 더이상 유혹에 지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제가 되도록 용기를 청합니다. — 글 | 김지혜 히야친타



주일학교 졸업을 맞으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래오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 속에 있었을때부터 주일마다 부모님을 따라 우리 성당에 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게 성당에서의 따뜻한 기억입니다. 아침에 주일학교에 가고, 미사를 드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고, 한글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름 VBS는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한 형이 항상 저랑 놀아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형이 저를 번쩍 안아서 위로 던져주고, 어부바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국의 다른 community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평생 제 안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때 Covid 때문에 매주 성당에 가던 routine 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춘기 시기의 저는 점점 하느님과 멀어지고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성당을 다시 나오게 되었을때 무척 이상했고 예전같지 않아서 어색했고, 가끔은 그냥 집에 있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기억들이 계속 저를 붙잡았고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이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하느님과의 거리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당은 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년 여름 VBS에서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그 따뜻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저의 mission이었습니다. 예전의 착한 형들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형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밌는 한 주를 선물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고, 찬양하고, 신나게 노래 부르며 우리의 믿음을 나눈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이들과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족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당은 저에게 가족이었습니다. **St. Andrew Kim is home, a safe place that helped me grow, and guide for me when I was lost. I owe my life to God, and I am thankful that He has shown me this community of my heritage.**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며 성장하게 해주신 신부님과 성당 community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o the teachers of Sunday school, Your work in mentoring all of us today was a blessing. I appreciate the time you took to help shape our lives as Korean American Catholics.

To JP, Thank you for showing me how far someone can truly love God and our faith. You've inspired me to embrace our faith, and I'm always reminded of your discipline.

To Andy and Chris, Our time together has always been so extraordinary. Thank you for showing how to laugh and live life. You'll always be my brothers for life, and I will never forget the memories.

엄마, 저를 항상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엄마 덕분에 저의 믿음을 더 깊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느님을 붙잡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저를 믿어주는 마음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데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And To Leah, You've given me purpose when I felt lost, strength when I felt weak, and love when I didn't even know I needed it. Being your younger brother is one of the greatest honors of my life. There is no version of me without you in it. You mean the world to me.

With my last words, I speak to you Sunday school students. Lean on this church like I did. Trust in God, and value your heritage. Know where you come from, and be proud of it. I stand before you with my roots deep in this church. My love for this church is forever. If I could do it all over again, I will always choose St Andrew Kim.

이제 저는 새로운 챕터로 나아가지만 이곳에서 배운 가르침과 저의 Catholic 신앙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졸업생 대표 김래오 (레오스테파노) -





2025 성경공부 및 성경잔치 역사서 말씀과 함께

역사서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공부하여 성서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당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대상 : 전신자
- ◆ 성경공부 기간 :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 ◆ 성경잔치 날 :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매달 통독 분량

월	성경 역사서 통독 분량	신부님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분량
1월	여호수아기 총 24장	62~65 (개론) 66~70 (여호수아기 본문)
2월	판관기 총 21장 & 룻기 총 4장	71~75 (개론) 76~80 (판관기 본문) & 82~87 (룻기 본문)
3월	사무엘기 상권 총 31장	88~90 (개론) 91~100 (사무엘기 상권 본문)
4월	사무엘기 하권 총 24장	101~108 (사무엘기 하권 본문)
5월	열왕기 상권 총 22장	108~118 (열왕기 상권 본문)
6월	열왕기 하권 총 25장	119~127 (열왕기 하권 본문)
7월	에즈라기 총 10장	143~145 (에즈라기 본문)
8월	느헤미야기 총 13장	146~150 (느헤미야기 본문)
9월	토빗기 총 14장	151~152 (토빗기 본문)
10월	유딧기 총 16장 & 에스테르기 총 10장	152~154 (유딧기 & 에스테르기 본문)

- ◆ 공부 방법 : 개인 또는 그룹으로 매달 분량을 통독 공부하고 개인별로 내용 정리 해서 숙제 제출 / 그룹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나 숙제는 반별로 취합 / 숙제 한건 당 5점 부여해서 반별로 점수 누적 / 매달 반모임지에 누적 점수 공지
- ◆ 숙제 제출 방법 : 정해진 양식의 종지로 제출하는 경우 사무실 교육부 트레이로,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홍세훈 교육부장 이메일 sehoon9224@gmail.com 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까지 제출